

강심장 무실점 피칭… 난세에 뜨는 샷별 ‘성영탁’

KIA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10라운드 지명…변화구·제구 능력 갖춰
올 시즌 10경기 12.2이닝 평균자책점 ‘0’…허리 싸움 새 전력 주목

KIA 타이거즈의 ‘샷별’ 성영탁이 무실점 피칭으로 팀 승리를 부른다.

KIA 마운드에서는 매년 ‘무서운 신인’이 탄생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프로 2년 차 성영탁이 새로운 전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성영탁은 지난해 신인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지명을 받고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다양한 변화구와 뛰어난 제구 능력에도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뒤늦게 이름이 불렸다.

지명 순번은 늦었지만 프로 두 번째 시즌 성영탁은 눈길 끄는 선수가 됐다.

지난 5월 20일 정식 선수로 전환되면서 65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처음 1군에 콜업된 그는 이날 KT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까지 치렀다. 2이닝 동안 8명의 타자를 상대로 그는 볼넷과 안타를 하나씩 내줬지만 실점 없이 인상적인 데뷔 무대를 펼쳤다. 4일 두산전에서는 프로 첫 홀드를 기록하기도 한 그는 정교함과 공격적인 모습으로 입지를 넓히면서 지금은 ‘허리 싸움’ 시작점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한화전에서 성영탁은 ‘난적’ 한화전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선발 양현종이 2.1이닝 5실점(4자책점)으

로 흔들렸지만 성영탁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기싸움을 이끌어냈다. 이 경기는 10회 연장 승부 끝에 KIA의 7-6 승리로 끝났다.

성영탁은 14일 NC전에서도 1.2이닝을 추가하는 등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12.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하고 있다.

노력의 결실로 스피드가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성영탁은 자신의 프로 첫 경기에서 147km를 찍기도 했다.

성영탁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구 리듬, 스피드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 10km 이상 차이가 난다”며 “지난해에는 스피드가 말도 안 되게 안 나와서 고민이 많았는데 비시즌에 잘 준비했다. 또 이상화 퓨처스 코치님이 캐치볼 할 때부터 120%로 던지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스피드도 나오고, 팔 스윙도 빨라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스피드가 나오니까 던질 게 많아진다. 작구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투심이라 같이 던지니까 타구 스피드 느끼게 땅볼 유도도 되고 자신 있게 던지는 것 같다”며 “1군 올라오기 전에 컨디션이 좋았는데 잘 유지하고 있다. 중간에 한 번 컨디션이 떨어져서

스피드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스피드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올해 148km가 목표다. 평균 구속이 올라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영탁의 가장 큰 강점은 대범한 승부다.

성영탁은 “경기하면서 상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대타자가 나와도 내 공 던지자는 생각으로 한다. 상대가 잘 치면 ‘원래 잘 치는 타자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상대에 집중하려고 한다. 끝나고 나면 ‘대단한 타자들하고 상대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최대한 포수 미트만 보고 던지려고 한다”며 “결과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한다. 수비진이 나와 있는 시간 최소화하고 싶어서 빨리빨리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운드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100% 이상 해내고 있지만 아직도 성영탁에게는 하루하루가 꿈 같다.

성영탁은 “꿈에서 그리던 무대에서 던지니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운드 올라가는 자체가 좋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찾아주시는 게 좋다. 팬들이 던지고 내려올 때 이름 불러주시는 것도 좋다. 꿈에 그리던 장면이니까 아작은 ‘와 진짜인가?’ 이런 느낌도 든다(웃음)”며 “선배님들 던지는 것 봐도 저런 선배님들하고 던지고 있는 게 영광이다. 씩씩하게 패기 있게 자신감 있는 투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선수 영입금지’ 최악 피했지만…

2년 연속 재정건전화 위반…제재금 1천만원·선수 영입금지 3년 유예
자금난 속 성적 위한 투자 불가피…팬팬 가수 조빈씨, 모금 운동 예고

광주FC가 ‘선수 영입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고민은 여전하다.

광주는 지난 12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제4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애타게 지켜보면서 기다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구단과 이정호 감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광주는 2년 연속 재정건전화 규정을 위반해서, 이정호 감독은 경기 후 공식인터뷰에서 판정 불만을 토로하면서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이날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금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선수 영입 금지와 관련해 ‘3년간 집행 유예’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광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연맹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재정건전화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단 수익 구조 모델, 선수단 비용 과잉 지출,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재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매년 손익분기를 달성해야 하며, 완전 자본잠식 구단은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연맹이 정한 기한 내 이를 해소해야 한다. 또 선수 비용은 당기 총수익의 70%를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연맹은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에 따라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인 2023년에 14.1억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채우지 못했다.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광주는 재무개선안도 지키지 못했다.

또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참가한 광주는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 증액을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대규모 영업 손실을 냈다.

연맹은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며 “2027년 회계 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지난 2월 5일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집행 유예 조치로 한 숨은 돌렸지만 길길이 뿜는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은 없고, 성적과 미래를 위해 투자는 불가피하다.

매년 재정 문제가 언급되면서 선수들과 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주의 ‘팬팬’으

로 유명한 노라조 조빈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FC 돕기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그는 “감독님과 선수들에게 ‘언제까지라고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과 함께 “16일부터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벌위원회를 통해 이정호 감독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5월 28일 울산HD와의 16라운드 홈경기가 끝난 뒤 “우리 팀하고 박병진 주심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올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다친다. 다음에는 우리 선수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1-1 무승부가 기록된 이날 광주 변준수는 후반 추가 시간에 공중볼을 다투던 중 울산 허윤의 팔꿈치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졌다. 경기 당시 경고를 받았던 허윤은 사후 징계를 통해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3월 22일 포항스틸러스와의 4라운드 순연 경기에서도 공중볼 경합과정에서 큰 부상이 발생했다. 조성권이 포함 어정원과 충돌해 중심을 잃고 그라운드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조성권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두 경기의 주심이 모두 박병진 심판이었다.

이정호 감독은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고졸 2년 차 투수 성영탁이 공격적인 피칭으로 위기의 마운드에서 ‘샷별’로 떠올랐다.

〈KIA 타이거즈 제공〉

공습에 발 묶인 이란 골잡이 타레미

인터밀란 소속…공항폐쇄로 합류 못해 클럽 월드컵 출전 불발

인터 밀란(이탈리아)의 이란 출신 공격수 메흐디 타레미(32)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에 따른 이란 내 공항 폐쇄로 출국길이 막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AP 통신 등 외신은 15일(한국시간) “최근 이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로 이란 내 모든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며 “타레미는 14일 예정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지 못해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타레미는 지난 11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북한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A조 10차전 최종전 출전을 위해 이란 대표팀에 합류했다.

타레미는 북한을 상대로 골 맛을 보며 이란의 3-0 승리에 힘을 보탠 뒤 클럽 월드컵에 나서는 소속팀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이란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2024년 7월 포르투(포르투갈)를 떠나 인터 밀란으로 이적한 타레미는 역대 처음으로 인터 밀란 유니폼을 입은 이란 출신 선수가 됐고 지난 시즌 공식전 43경기에 나서 3골 9도움의 좋은 활약을 펼쳤다.



타레미는 오는 18일 열리는 몬테레이(멕시코)와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 출전이 어려워졌고,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공항 폐쇄가 폴란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축구의 신’ 메시, 클럽 월드컵 개막 골 불발

32개 팀 참가 FIFA 클럽 월드컵
인터 마이애미, 조별리그 1차전
아프리카 명문 알아흘리와 0-0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개막전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사진)의 인터 마이애미(미국)가 아프리카 명문 알아흘리(이집트)와 비겼다.

마이애미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알아흘리와 0-0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32개 팀 체제로 열리는 클럽 월드컵이다.

대륙별 클럽 대항전 우승팀들끼리 맞붙었던 예년과 다르게 이번 대회부터 클럽 월드컵은 32개 팀이 참여하는 대형 이벤트로 펼쳐진다.

총상금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 3678억원)에 달하고, 대회 개최 주기도 국가대항전 월드컵처럼



4년이다.

A조에서는 마이애미, 알아흘리, 포르투(포르투갈), 파우메이라스(브라질)가 경쟁한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마이애미의 강세가 예상됐으나 기선을 제압한 쪽은 알아흘리였다. 이집트 리그 44회 우승에 빛나는 알아흘리는 킥 오프 8분 만에 날카로운 역습으로 마이애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알아흘리의 에이스 에맘 아슈리의 마무리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메시는 전반 45분 시원한 원발 슈팅으로 골대를 강타한 데 이어 2회 연속으로 코너킥으로 직접 골문을 노리면서 존재감을 보였다.

클럽 월드컵 개막 승리를 노린 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힘을 짜내 스프린트를 시도했으나 테클에 막혔다.

종료 직전에는 오른 측면에서 원발로 반대편 골대를 정조준했지만 엘세나우가 어렵게 쳐낸 게 골대를 맞고 벗어나면서 끝내 득점하지 못했다.

예상보다 흥행이 부진한 탓에 FIFA가 티켓 가격을 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현장에서 연일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던 대회 개막전의 관중 수는 6만927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